문화수도 위한 긴급제안

광주 도심 리모델링

❺도시와 대화하는 공원을

곳곳에 소공원…녹색 그물망을 짜자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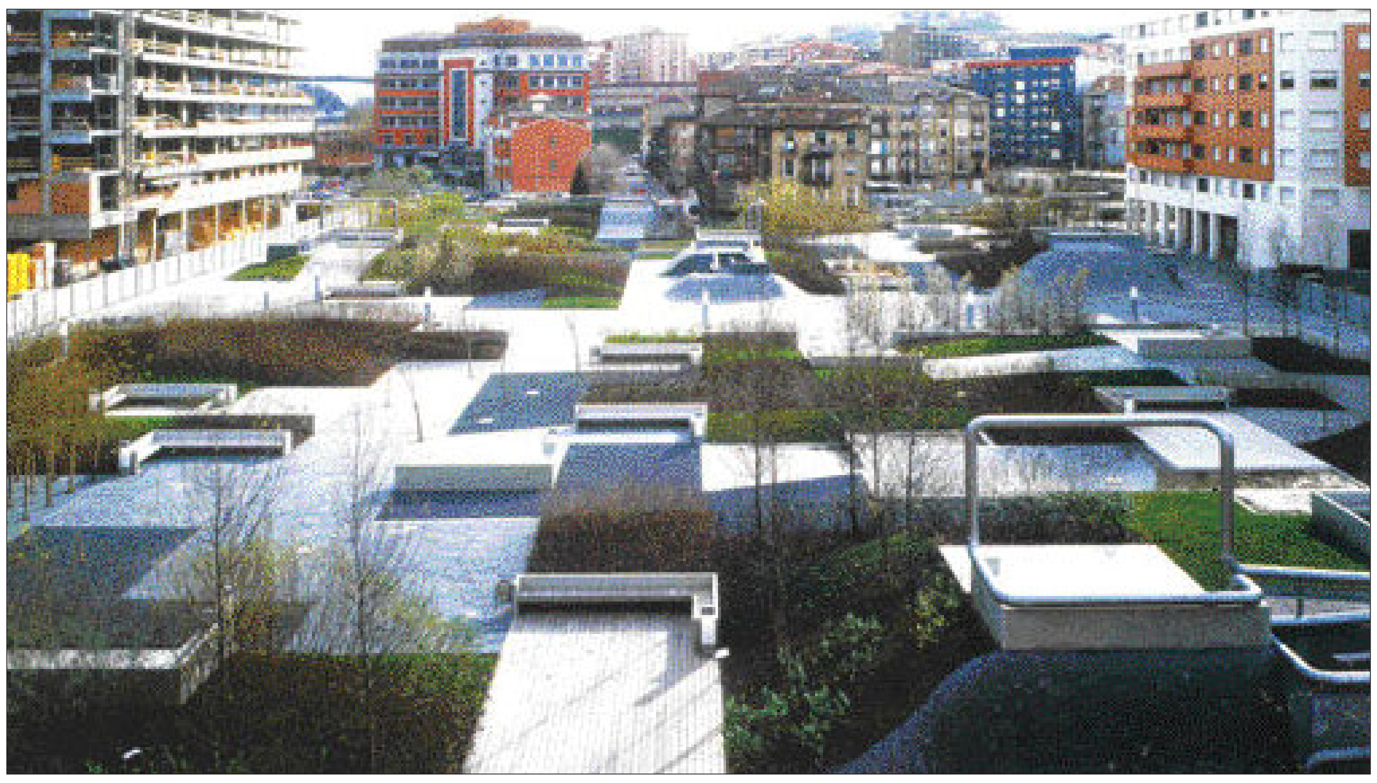
공원하면 파란 잔디가 깔리고 잘 생긴 나무들이 빽빽하며 심심치 않게 호수나 연못도 보이고 그 사이로 산책로가 있는 그런 곳을 연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도시 공원은 장소적 특성과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공간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도시 공원이 도시의 나머지 부분이나 사용자들과 연결되지 못한 채 도심의 '녹색 섬'으로 고립돼온 게 사실이다.

도시의 공간과 일상적 삶에 역동적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목가적 공원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폐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의 공간과 공원, 일상적 삶과 공원이 소통할 수 있을까.

먼저 도시와 공원이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파기하고, 공원을 통한 도시의 성장, 즉 도시가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광주로 눈을 돌려보자. 광주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이 도심 복판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자연의 복제품 같은 목가적 공원이 광주에서 더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광주의 도시 공원이 취할 전략은 단 하나일 것이다. 작은 공원을 도시 전체에 조성하고 이들을 수많은 끈과 같은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공원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페인 빌바오에 조성된 데지에르토 공원은 연립주택을 철거한 뒤 옛터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형 공간이다. 공원은 인근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문화전당·폐선부지 축으로 작은 공원 네트워크화
도심 초교 남는 시설·부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과학교육원은 '학생공원' 자투리땅엔 '포켓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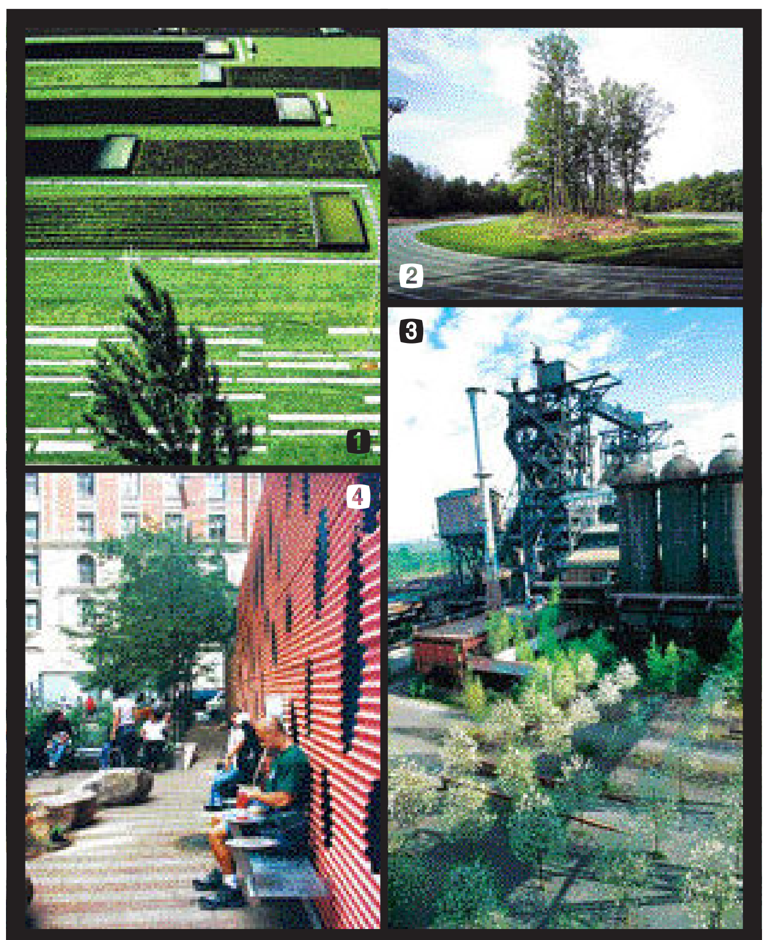
몇 가지 전략을 구체화해 보자. 먼저 장기적인 공원의 성장을 위해 씨를 뿌린다. 작은 점과 선적인 공원이 도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책과 소풍 경로를 제공하는 소로로 공원을 그물처럼 엮어 도시 전체를 관통시킨다. 그 다음은 공원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 공원의 여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 도심은 공원의 네트워크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이미 갖고 있다. 바로 공원 그물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폐선부지 공원이 그것이다.

옛 전남도청에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물의 대부분을 지하로 넣고 대지의 많은 부분에 녹음을 도입하여 공원화하는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문화시설과 결합된 대규모 공원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원화되는 폐선부지는 선적인 녹지대로 남아서는 안된다. 필요한 결절점에서 주변의 도심으로 확장하는 씨앗이 돼야 한다. 여기에 광주천이 가세하면 광주 도심의 공원 그물망의 큰 얼개가 완성될 것이다.

이제 광주의 도심에 한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 공원을 몇 군데 구상해 보자.



세계 도심의 공원이 진화하고 있다. ①식물원을 텃밭으로 조성한 독일 '보듀공원' ②필드를 녹지로 만든 스페인 '투솔바질 체육공원' ③제철소를 공원화한 독일 '엠셔파크' ④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뉴욕 '포켓파크'.

광주중앙도서관 주위로 입시학원이 밀집해 있는 동명동, 흔히 과학관이라 불리는 과학교육연구원이 이전하면 그곳에 학생들의 공원을 만들자. 멋진 숲과 오솔길은 필요없다. 아이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잔디밭, 그늘을 만들어 주는 잎 많은 나무들, 그리고 공부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열린 공연장이면 족할 것이다.

도심의 인구가 줄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이 학교 규모를 줄이고 남는 대지를 문화시설과 공원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작지만 최고의 학교 시설을 갖추고 운동장과 맞대어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도입하고 외부공간은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가꾸자.

이런 공원의 후보지는 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매입하거나, 대지 소유자와 시설에 적절한 보상과 대토를 제공하여 얻을 수 것이다. 그밖에 건물과 건물 사이나 공공시설물 주위의 자투리땅에 소규모 '포켓 공원'을 조성하고 차도와 인도 폭을 조정하여 도시 공원들을 잇는 녹색의 띠를 두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원의 그물망화 사업은 단시일에 끝날 일도 아니고 한두 주체에 의해 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에 살며 광주를 책임지는 모든 주체의 강력한 열망과 끈질긴 노력, 특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원은 도시의 탈출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공원은 변화하는 도시의 공간, 문화 구조와 함께 호흡하며 상호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소로 변모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와 대화하고 소통해야하는 것이다.

〈usyoo@jnu.ac.kr〉

■도시공원 새 모델 '선유도 공원'

정수시설 그대로 살려 '물' 주제 생태공원으로

선유도 공원은 지난 1978년부터 20여년간 서울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을 재활용해 만든 도심 속의 보기드문 생태공원이다.

서울시는 폐기된 정수장을 제거하지 않고 물을 테마로 한 수변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조경 전문가·건축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사업기간 내내 유지했다.

설계자들은 기존 정수공장의 구조물들을 부분 철거하고, 철근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물때가 깊이 각인된 표면들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탄생한 '시간의 정원', '환경물놀이터', '수생식물원', 야외소극장 등은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연속적이고 긴밀히 연계된 공간의 모습을 갖췄다.

서울시-조경·건축전문가 협력 모순의 기억 '순환의 미학' 승화

선유도 공원은 경관에서도 상투적인 다른 공원들과 다르다.

중간에서 끊어진 콘크리트 기둥과 수로들, 원형 사일로, 녹슨 철제벽과 같은 낯선 요소가 가득하다. 방문객들은 산책하면서 다채로운 식물들과 대화할 수 있고, 생태적인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교육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유도 공원은 연간 20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산업 구조와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모함에 따라 과거의 산업 시설들이 흉물스럽게 버려진 채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는 향후 도시의 경관과 공원설계에 중요한 초점이 될 전망이다.

부지에 담긴 모순의 기억을 없애는 것 보다 노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원'과 순환의 미학을 선보이고 있는 선유도 공원에서 우리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공원의 대안을 목격할 수 있다.